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본 문 마태복음 11장 12절, 16장 27절, 25장 23절

* 사회자는 오늘 주제를 미리 말해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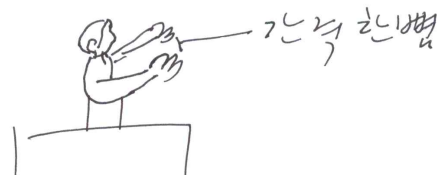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휴거 못 할 자도 휴거되고, 아쉽게 인생을 실패한 자들도 성공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표적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누구에게나 표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2012년 12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성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실체를 보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자의 한마디 말씀 그대로를 오늘 주제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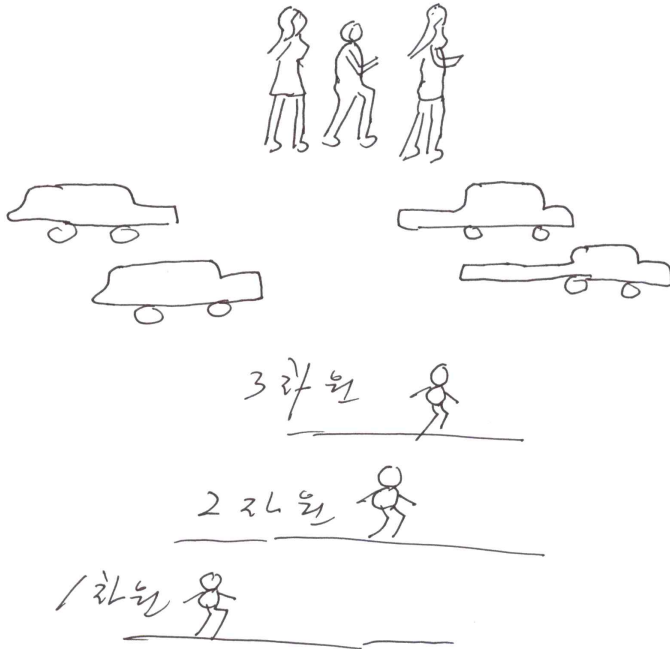
(* 화면을 보면서, 그 한마디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1>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초안과 같이 제스처 하기.)



조금 차인데도 못 따라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계시해 주셨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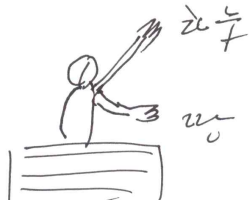
인생 승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 인생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행한 것을 보면, 승자는 패자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고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를 다른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승자를 따라가려면 조금 더 행해야 되니, 승자가 되려면 조금 더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행한 대로 갚아 준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만 갚아 주니, 패자는 승자가 하듯이 ‘조금 더’ 하지 못했기에 승자를 못 따라잡니다. ‘조금 더 하고, 못하는 것’이 승패의 원인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 휴거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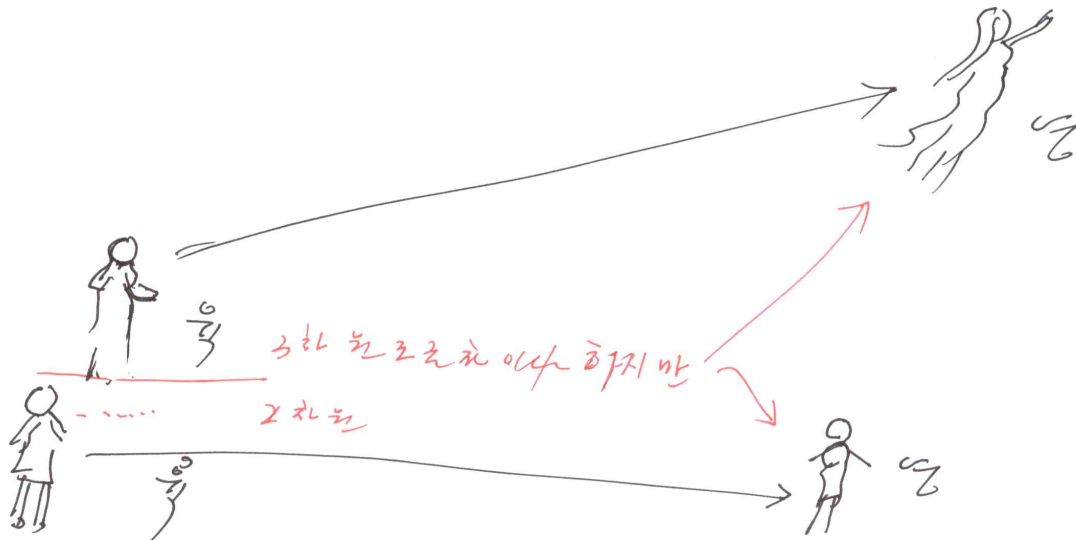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늘과 땅 차이 표현)

천국 성약권 신부 차원의 휴거와 그 아래 차원은 상상도 못 하는 차이가 납니다. 천국 성약권 신부 차원의 휴거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조금 더’ 했기 때문입니다. <끝>



(초안과 같이 제스처)



그래서 주님은 특히 ‘휴거’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하라고, 나의 신부들에게 꼭 이 말을 자세히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기도도, 개인의 일도, 교회의 일도, 각 부서별로 하던 일도 조금만 더 차원을 높여서 하면, 전체가 다 잘됩니다.

모두 조금 더 행하도록 성자께서 먼저 선생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더 주시어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행하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전환> ★ 이 말씀을 듣는 섭리사 모든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 ‘조금 더’ 못 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조금 더’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후회했지만, 오늘 ‘조금만 더 하라’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행하여 이번만은 승리하여 과거의 것까지 복직하고 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게으르고, 적극성이 없고,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행하지 않는다면 성자 주님도 선생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안 하니, 돕는 길은 <교육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조금 더’ 못 했기에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금 더’ 했다면, 현재에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성자 주님도 아시고 선생도 알기에 심정을 쏟아서 오늘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섭리인 중에서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끝까지 했다면, 지금 수십억씩 벌 자들이 ‘조금 더’ 못 해서 못 번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하늘의 비밀의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조금만 더’ 하라고 그렇게도 말했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안 한 자들은 사랑에 실패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보고되어 온 사실을 말하고, 직접 본인에게 확인하고서 말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라는 것입니다.

<전환> 선생도 지난해에 성자께서 “조금만 더 참고 해라.”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더 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영상3>

섭리인 모두 ‘넷물’에서 씻고 자리를 잡으려 했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해라.” 하시어 작은 산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었습니다. 고로 강물 차원에서 섭리사를 이끌며 섭리역사를 펴 왔습니다. / 조금만 더 하면 겨우 무릎이 닿는 넷물에서 벗어나 강물에서 배 띄우고 고기 잡으며 청중과 함께 역사를 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조금 더 하자는 것입니다. <끝>

조금 더 당겼으면 죽을 생명도 살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하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조금 더 하면 자기가 거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하면 휴거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안 하려고 합니까?

작년 1년 동안 선생이 편지해 준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은 신앙의 마음을 잡고 다시 힘을 받고 생명길로 오는 자가 되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됐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한 번 더 했을 때, 성자 주님과 선생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기도 했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조금 더 못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조금’ 이지만, 전 교인들은 아쉬워하고 영적으로 제2단계에 못 올라가 전 교인의 영적인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작년에 성령집회를 놓고서 조금 더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게 하여 조은 목사를 통해 핵심 말씀을

외치자.” 하고, 선생은 또 새롭게 재림과 휴거의 핵심 말씀을 써서 조은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말씀을 불같이 외치고 있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재림과 휴거와 성자와 분체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 목사가 선생의 코치를 받고 설교 원고를 써서 선생에게 보내면, 마치 금에다 다이아몬드를 박듯이 조은 목사가 쓴 설교 원고에 다시 한 번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은 목사가 면회 왔을 때, 가는 곳마다 조금 더 불같이 외치도록 10분 동안 직접 말씀을 전해 주며 의미를 가르쳐 주어 심정에 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직접 10분 동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불을 받고 가서 ‘조금 더’ 불같이 외치게 했습니다. (기본 제스처에 ‘조금 더’ 할 때, 두 손으로 조금 더 표현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그로 인해 섭리사 전체는 말씀과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됐습니다. 결국 2012년 마지막 집회인 서울 집회 때는 성령의 불의 역사였고, 성령이 충만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로 휴거되지 못하는 차원에 있던 자들이 더욱 변화되어 많은 자들이 휴거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섭리사 전체가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더욱 외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본 제스처) 조금 더 하라는 성자의 계시를 듣고 한 것입니다. 이래도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끝>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연을 처절하게 써서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는 없었고 이름 두 자만 있었습니다. 선생이 그 편지를 받고서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운명을 좌우하는 답을 써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백성 중의 한 사람이 왕을 감동시키듯이 사연은 처절하게 써서 ‘내용’ 에는 성공했는데, ‘자기소개’ 에는 실패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잘 썼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여 선생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몰라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편지 잘 받았다. 잘해라.” 라고만 답해 주었습니다. 다 해 놓고 ‘조금 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래도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잘 아는 사람은 굳이 자기소개를 안 하고 소속 교회나 부서를 안 쓰고 이름 두 자만 써서 보내도 편지를 읽으면 잘 압니다.

편지 쓰기 전에 ‘구상’입니다. 무엇, 무엇을 꼭 넣어야 되는지 구상하여 간단하게 넣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써야 됩니다.

편지를 쓸 때는 꼭 진지하게 진정으로 써야 됩니다. 또 글씨체가 좋아도 너무 작게 쓰거나 흘림체로 막 쓰면 ‘이것은 내게 오는 편지가 아니구나. 자기 친구에게 갈 것이 내게 왔구나.’ 하고 안 봅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그로 인해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래도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에게 꼭 받아야 될 답을 놓고 편지를 해 놓고서, 선생에게서 답장이 안 오니 ‘조금 더’ 수고해서 답장이 안 왔다고 다시 편지하며 한 번 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말았습니다. 선생에게 확인했다면, 선생이 다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 줬을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못 하면, 자기 혼체라도 시켜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전환>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선생은 지난 늦가을에 너무 바쁘지만 꼭 거둬들일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혼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월명동 주위와 내가 찾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주고 장소를 말해 주면서 “이 같은 수석이 땅에 굴러다니는지 찾아봐.” 했습니다. 내 혼체는 그림을 쳐다보더니 그것이 어느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오자!” 했습니다. 내

혼체는 “육신을 써야 가져올 수 있으니, 사람을 시키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부름하는 자에게 시킬 테니, 너도 같이 가서 그들의 육을 쓰고 그 자리에서 주워 오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스타사진국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너희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물을 자세히 잘 보니, 내 심부름 좀 해 줘. 내가 내 혼체와 같이 확인했는데, 감람산 전망대 밑에 자연석이 있어. 거기 가서 자연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줘. 내 혼체도 같이 보낼게. 내 혼체가 너희 육신을 쓰고 가지고 온단다.” 했습니다.

사진부는 즉시 움직였고, 감람산 전망대에서 돌 일곱 개를 주워 왔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습니다. 형상이 좋은 돌은 못 주워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서 보라고 하고 싶은데, 일찍 겨울이 와서 눈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오지만,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돌을 주우려고 내 혼체를 불렀습니다. “놀면 뭐해? 조금 더 좋은 돌을 찾아보자. 월명동에서 3000m 떨어진 인대산에 가서 먼저 사진부 통해서 주운 돌보다 조금 더 좋은 돌이 있는지 보고 와.” 했습니다.

내 혼체는 요전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광산 굴 밑에 가 봐. 인대산에 어린이 얼굴만 한 돌이 있어. 사진부를 보내도 찾기 어려운 데 있으니, 네가 먼저 가서 보고 와.” 했습니다. 내 혼체는 가서 보고 오더니, 거기 그런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찾기 어려운 데 있으니, 편지로 자세히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하여 전에 주운 돌보다 더 좋은 형상석을 주워 와라. 인대산에 그 돌이 있단다. 인대산의 굴을 판 데서 나온 돌이다. 하나하나 자세히 봐라. 얼굴 형상이다. 찾기 어려우니까 사진 찍을 때 보듯이 자세히 봐.” 했습니다. <끝>

그 후 열흘 후에 사진부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012년 12월 28 일경이었습니다. 인대산에서 찾은 돌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맞는지 선생님의 혼체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볼수록 신비한 돌이었고 강한 차돌이었습니다. 사진부에게 편지하기를 “내 혼체에게 물으니, 이 돌이 맞단다. 내 혼체가 가서 너희 육신을 쓰고 했단다.” 했습니다.

어떤 돌인지 궁금하지요? 전에 주운 돌과 나중에 주운 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상6>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보여 준다. 무엇이 나중에 주운 돌인지 자막은 나가지 않는다.)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옵니다. 화면을 보고서 이후에 주운 조금 더 나은 돌이 무엇인지 맞춰 봐요. (이제는 무엇이 나중에 주운 돌인지 자막이 나간다.) 늦게 주운 돌은 이것입니다. → 이 돌은 성질이 아주 강한 차돌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눈이 있는 위치에 눈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차돌이라서 ‘사탄에게 안 당하고, 악평을 듣고 유혹을 받으면 질그릇 깨부수듯 깨부수고 승리하는 머리’입니다. 모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건했듯이, 시대 말씀을 듣고 이 차돌같이 굳건한 강철 머리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끝>

선생의 것은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의 것이고, 그의 신부들인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로 그 속에 담긴 사연과 함께 1000년 동안 씁니다. 심부름꾼은 스타사진국이었습니다. “사진 찍을 것이 없어 심심하니, 이벤트 하자!” 하고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조금 더 하라는 성자 주님의 말씀대로 내 혼체도 써 먹고, 못 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서 했습니다. 육, 혼, 영 세 존재가 합동으로 하니 됐습니다. 조금 더 하니, 서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래도 ‘조금 더’ 안 하겠습니까?

요즘은 선생의 육신은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선생의 혼체를 시켜서 내가 만나기 원하는 자들과 나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을 만나 주라고 합니다. 내 혼체는 혼계에서 그들을 만나 주고, 내 육신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느 날은 내 혼체가 어떤 여자 제자의 혼체를 영계에서 봤는데, 남자를 만나고 있었답니다. 그 육신도 분명히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선생은 편지해서 확인합니다.

<전환> 새벽에 기도할 때 성자 주님은 내게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생의 삶을 보니, 새벽에 조금 더 자고 한 날이 조금 덜 자고 한 날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가려면 오직 조금 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결에는 한두 시간이 순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두 시간 조금 덜 자니 능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따라갈 길이 없었습니다.

★ 조금 못 하여 차이 난 것이 조금 더 하여 차이 난 것을 평생 못 따라잡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차이 나게 하지 않으렵니까? 조금 더 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 조금 더 함으로 차이가 나서, 결국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조금 더 못 함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결국 영이 영원히 성약성을 벗어나서 사는 운명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안 하렵니까?

‘조금 더 하여라.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이 계시를 놓고 계속 기도해 봐요. 깨닫게 해 달라고요. 그리고 지난날 겪은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재수생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재수 안 합니다.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때문에 채수하는 자들은 공부할 때 조금만 더 했다면 합격했을 것입니다. 답을 많이 몰랐던 자들 역시 조금만 더 공부 했으면 됐습니다.

★ 자기가 최대한 할 만큼 다 하고, 그 터전에서 ‘조금 더’ 할 때... 그것이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니다. 월명동 야심작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쌓았을 때, 대결작이 됐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섭리사 조각가에게도 성자 상을 조각할 때 코치했습니다. “지금 한 데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라. 그러면 조각이 살아난다. 지금 눈을 봐라. 그냥 말뚝거리기만 한다.” 했습니다. 계속 조금 더 하게 하여, 얼굴이 살아 있는 조각을 만들도록 6개월, 1년, 2년씩 결재를 안 했습니다.

아쉬운 것까지 다 잡아서 조금 더 할 때 “살아 있는 조각이다!” 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을 남기고 끝내면 걸작이 못 됩니다. 두 개의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한 개에 집중하여 조금만 더 해서 차이 나는 한 개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끝>

관리할 때도, 전도할 때도, 강의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외칠 때도, 제스처를 할 때도 ‘조금만 더’ 하면, 조금 차이인데 A급 인생이 되고, A급 설교가 됩니다.

미인을 뽑는 대회에서 진과 선과 미는 조금 차이가 있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사에서도 “저 사람과 나와는 별 차이가 없는데 크게 쓰이네?” 합니다. 따져 보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대구 지역의 수백만 개의 사과 중에서 제일 크고 맛있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표도 안 납니다. 저울에 달아 봐야 되고, 사진을 찍어서 모든

각도를 다 봐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도 두 번째로 멋진 사과보다 알밤 하나만큼 무게가 더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낮기 때문에’ 100만 개의 사과 중에서 킹이 된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은메달을 딴 선수도 조금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서도 크게 쓰이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때도 당선된 자와 그다음에 표가 많은 자를 비교해보면 전체에 비해 표 차이가 조금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로 5천만의 킹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제스처 : 손과 손은 어깨 넓이 간격으로 벌림. 기본 제스처 할 때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준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한국에 대선이 시작되기 40일 전에 성자 주님은 최고 인기인들 세 명을 놓고, “이름의 뜻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름의 뜻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성자는 항상 은유법, 비유법으로 말씀하시고, 혹은 방향을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끝>

설교하실 때도 완전히 다 까놓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자가 신중히 들으면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들으면 더 차이가 납니다. 그 ‘조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선생은 산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풀 때, 겨울철 강추위 속에서 달달 떨면서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경을 풀었습니다. 21년 걸렸습니다.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또 성경을 풀었는데, 30

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더, 조금 더 배워서 50년 동안 배우고 외치는 것입니다. (‘달달 떨어면서도’ 할 때, 몸을 달달 떠는 것 표현한다. 그리고 힘차게 외쳐야 할 부분은 기본 제스처를 한다.) <끝>

모든 일을 할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키 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큼니다. 키가 작은 사람보다 2cm, 3cm, 5cm, 10cm 더 큼니다. 혹은 한 뼘 더 큼니다. 그런데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빌딩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사명도 조금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자 주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거기가 거기네?’ 하지 말아라. 많이 차이가 나는 자를 뽑으려면 없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가 주인이다.” 하셨습니다. 교역자 사명을 주는 것도, 각종 사명을 주는 것도 그러합니다.

월명동 <사랑의 집>도 처음에 구상했을 때보다 2년 동안 더 기도하며 구상했더니 ‘조금 더’ 다르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완공되면 그 조금의 차이로 인해 웅장해서 놀랍니다.

<전환>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중한 말씀입니다.

★ 현재에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휴거될 자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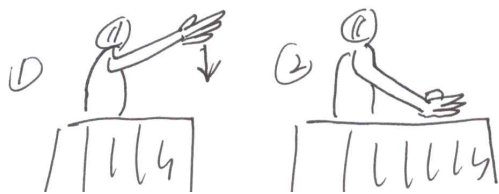
★ 선생도 금년도에는 ‘조금 더 하기 도전!’ 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조금 더 해서 줄 것입니다. 고로 금년도 말씀은 작년 말씀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면, 엄청난 감동을 받고서 ‘그 조금의 차이’로 인해 남들과 엄청나게 차이 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 마음, 정신, 생각, 행실, 기도, 증거, 전도, 관리, 아는 것, 외치는 것 모두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잘라 내는 선에서 합격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차이는 불과 10cm, 5cm입니다. 5cm 때문에 그 합격선에서 잘려 나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만 안타깝습니다.

★ 원래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면,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작년 연말에 ‘쫓개는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바로 책임 못 한 자는 쫓개 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측량 중이라서 기회가 있으니 이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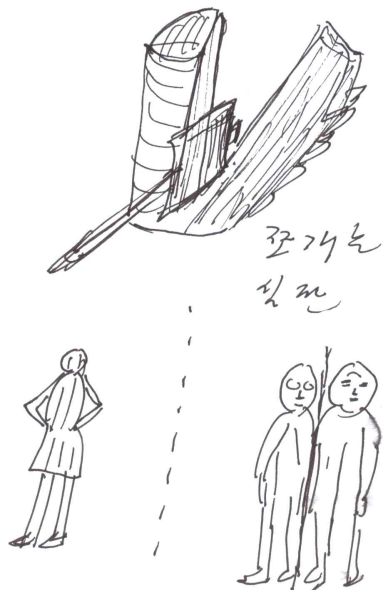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2012년도의 하나님의 연말 심판은 ‘쫓개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팔을 쪽 펴고
위에서 아래로 쫓개는 모습 표현)

2012년 12월 16일 주일말씀을 통해 쫓개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 주간에 섭리사도 쫓개 내고, 구시대 기성도, 민족도, 개인도, 정치도, 경제도, 세계 각 나라 모두 하나님은 공의롭게 저울에 달아 쫓개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연말 심판을 언제 했지?” 합니다. 가르고 쫓개는 것이 심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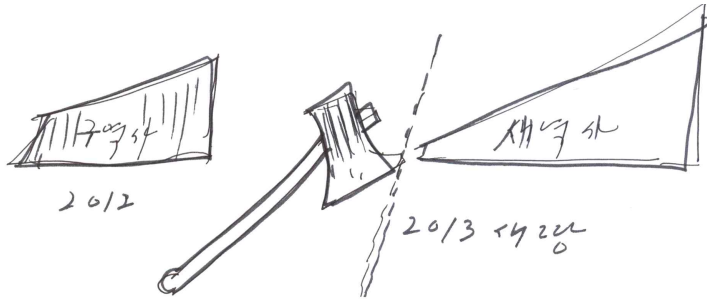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심판’ 하면 기성같이 불 심판으로 생각하거나 무엇을 때려 부수는 것으로만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심판’입니다. 조용히 말씀으로 쪼개지만, 영계에서는 엄청나게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쪼개는 심판을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 못 한 자들은 쪼개 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쪼개 그 선에서 따라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록에서 지워지고 사망권에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심판을 당했으니,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계의 소경이니 본인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도끼 같은 성자의 말씀으로 구시대와 새 시대를 분리하여 심판한 것입니다. <끝>



<전환> 지금까지 성자 주님과 함께 ‘조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11>

<성자의 말씀>

나 성자는 너희 선생과 함께 2012년 한 해 동안 너희에게 조금만 더 하라고 수십 번 코치했다.

너희 선생도 나의 코치에 따라서 편지, 각종 결재, 기도, 말씀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했다. 고로 섭리사 전체에 그만한 혜택이 가게 했다.

최대한 할 만큼 다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하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가면서 했다. 한 센터의 일이 끝나면, 즉시 또 다음 센터의 일을 해야 하니 한두 번 숨만 쉬고 바로 했다. 또 그 센터의 일이 끝나면, 즉시 다른 일을 했다.

너희에게 전달할 것들을 모두 우편으로 부쳐야 하니, 1초라도 늦으면 그 날 못 보내고 하루 늦게 너희에게 전달되어 문제가 얹히기 때문이다. 1초 빨리해서 86400배 빨리한 셈이 됐다. 1초를 빨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했는데, 그 조금의 차이로 많은 일을 했다. 고로 조금 더 한 것을 못 따라간다.

이 시대도 너희 선생을 조금만 더 알아보고 대했다면, 너희같이 살았을 것이다. 너희는 조금 더 알아보고 대하여 새 역사로 와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 ‘조금의 차이’가 운명을 좌우했다.

또한 섭리사 초창기 때 와서 너희 선생과 한자리에서 매일 만나고,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이야기한 자들도 조금 더 행하지 않아서 내 분체인 너희 선생을 제대로 몰라봤다. 제대로 알았다면, 전능자 나 성자가 행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섭리사 초창기 때는 선생의 사명을 알고 따라오기보다 선생이 잘해 줘서 따라온 자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환난이 일어나니 선생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더욱 힘들어하며 고통을 받았다. 고로 ‘사명’을 보고 따라와야 된다.

나 성자는 너희 신앙의 점수가 어느 선에 있는지 안다. 고로 재촉한다. 내가 합당한 말을 해 주면, 섭리사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고로 아직 선을 못 넘어온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수백 명, 수천 명씩 넘어온다.

2012년에는 조금 더 행하고자 “섭리사 전체가 기도하자!” 하고 70일 생명의 기도를 제외하고 21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느냐.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2>

섭리사 첫 번째 전체 기도 조건 기간인 <40일 에스더 기도 기간>에 ‘본체와 분체 인봉’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성자가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전능자 성자가 땅에서 택한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고 성자의 분체로 세우고 역사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고로 너희 믿음이 굳건해졌고, 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어 휴거의 확신을 얻게 됐다. 고로 너희가 최고 희망에 불타게 되었다. <끝>

만일 성자 본체와 분체를 몰랐다면, 너희 선생이 사명자라도 사람이라서 약해서 걱정한다. 왜 사명자가 그리 약하나며 실망한다. 근본자 신과 그가 쓰는 육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 쓰신 주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약하다. 고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전능자 나 성자 본체가 근본으로 역사하며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너희 신앙이 확실하게 되었다.

기성을 보라. 분체인 나사렛 예수만 보고 믿으니 믿다가 말고, 믿어도 힘이 없는 것이다.

‘본체와 분체의 인봉’은 종교 역사상 최고의 인봉이며, 믿음을 철강같이 해 주는 말씀이다. (아멘.)

분체의 육이 늙어 죽어서 없거나, 또 안 죽어도 늙으면 힘이 없으니 따르는 자들도 그만큼 힘이 없을 것 아니냐. 하지만 전능자 나 성자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너희들은 항상 힘을 받게 되고, 기성같이 분체로 인한 극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전환> 조금 더 하여라! 그 ‘조금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니, 따라올 수가 없다. 하늘의 비밀이 많아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을 못 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더욱 깊이 깨달아라. 너희 선생도 아주 깊은 것은 말을 안 한다.

조금 더 해서 차이가 나면, 휴거되지 못할 자가 휴거된다. <영 휴거>가 진행돼도 ‘조금 더’ 행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 휴거되느냐, 못 되느냐가 좌우된다. 아는 자만 안다. ‘조금의 차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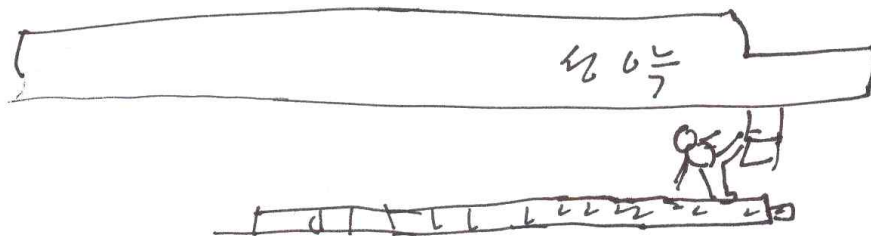
2012년에 내가 왜 그리 숨넘어가는 소리를 했겠느냐. 너희에게 경각심을 넣어 주어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늘 편을 상황을 보

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고로 “막차다. 기회가 없다. 해가 서산에 거의 다 기울었다.” 했다. 특히 “2012년이 마지막 기회다.” 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3>

2012년이 막차였다.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2012년을 끝으로 ‘신약의 해’가 영원히 넘어갔다. 신약인들이 섭리사에 못 오고 해는 넘어갔다. 고로 첫 번째로는 구시대인들을 보고, 마지막이라고 외친 것이다.

두 번째로 새 역사로 온 너희들에게 2012년을 끝으로 ‘신약의 열차’에서 발을 떼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2013년 새 역사 부활과 독립의 열차’에 제대로 발을 디디라고, 마지막이라고 외친 것이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니, 어서 완전히 새 역사로 넘어오라고 외친 것이다. 이것이 핵이다! <끝>



올해는 나 성자가 조금씩 말해 준다. 그러니 조금씩 말해도 알고 진행하는 자는 유익이다.

신약시대 때 제자들이 자기 선생 예수에게 묻기를 “언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옵니까? 구세주가 옵니까?” 했다. 이에 예수는 “때가 돼야 한다. 인자는 가까이 오고 있다.” 했다. 그때도 외치는 자 예수가 인자, 곧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인자를 맞을 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인자가 문 앞에 온다.”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때는 성자 본체를 확실히 모르니, 예수의 육만 보고 외친 것이다.

또한 예수가 죽기 몇 주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기를 “언제 이 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했다. 이미 예수는 3년 동안 메시아로서, 성자의 육으로 할 일을 다 했다. 끝나도 모르니 가르쳐 주지 않았다. 과정 중에 다 끝난 것이었다.

이 시대도 나 성자에게 계시받는 자들이 외친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나 성자가 내 분체에게 밝히고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라. 어떤 것은 나 성자가 진행해도 너희에게는 밝히지 않고 내 분체에게만 말해 주며, 말하지 못하게 한다. 나 성자가 일을 진행해도 내 분체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숨기고, 다만 깊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입을 다물게 한다.

<육적 휴거>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다. 자기가 새 역사로 와서 믿고 깨닫고 행하는 만큼 느끼고 깨닫는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에게 표가 나지 않으니 “언제 육적 휴거를 하지?” 한다. 이미 34년 전부터 했다. / 이와 같이 <영적 휴거>도 과정 중에 한다. 영 휴거가 시작돼도 영의 세계에서 하니, 육은 모른다. 자기 혼이 알고 자기 육에게 전하여 확인하고 알게 된다.

(* 영적 휴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유로 쉽게 말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4>**

<첫 번째 비유다.> 봄을 두고 ‘어느 한 날’ 이 봄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한 기간’ 이 봄이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러하다. / <영 휴거>도 ‘어느 한 날’ 이 아니라 ‘한 기간’ 을 두고 한다.

<두 번째 비유다.> 길고 긴 기차의 ‘앞’ 과 ‘끝’ 은 차이가 있다. 기차 한 칸의 길이는 13m 정도이고, 기차는 총 5~20칸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 20칸이면, 기차 한 대의 길이가 260m나 된다. 그런데 기차

의 어느 한 곳만 기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느 한 칸만 기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영 휴거>도 ‘어느 한 날’ 이 아니다.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영 휴거가 시작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휴거 기간’ 이다. **세상의 날로 하루가 아니다. 순간의 한 기간이다.**



(세상의 날로 하루가 아니다. 한 기간이다. :
손가락과 손바닥을 다 펴서 보여 준다.)

<세 번째 비유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는 8000m다. 가령 그 열차가 너희 집 앞에 지나간다 하자. 맨 앞 칸에 있는 사람은 열차가 자기 집 앞에 왔다고 하지만, 맨 뒤 칸에 있는 사람은 아직 집 앞에 안 왔다고 한다. 영 휴거도 이러하다. ‘휴거 기간’ 을 열차 길이로 비유해서 표현했다. <끝>

<매듭> ‘영’ 은 안 보인다. 그러나 자기 육의 행위를 보면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고로 오늘 말씀같이 너희 육이 최대한 행한 데서 조금만 더 하여라. 그로 인해 너희 영이 완전하게 된다.

영이 100%로 변화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99%에서 머물러 조금의 차이로 휴거되지 못한다면 너희 영이 얼마나 탄식하겠느냐. 너희 육을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그러니 영이 안 보여도 혼을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육을 가지고 조금 더 해서 채우라는 것이다.

나 성자도 한 마디라도 더 말씀해 준다. 그로 인해 급한 것을 행하여 너희 운명이 좌우된다.

2012년에서 2013년이 됐어도 별 표가 안 나는 자는 조금 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이나 2013년이나 해는 똑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다. 새 역사 부활과 독립의 해가 떴다.

깊이 기도하고 행하는 자만 2013년도는 뭐가 다른지 안다. 알면 충격을 받게 된다.

오늘은 조금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는 깊은 비밀의 말씀을 했다.
사랑의 성자 주니라. 샬롬!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육과 영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어 우리 육과 영을 휴거시키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 역사 부활과 독립의 해를 맞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조금만 더 행함으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을 100%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 고>

1. 수요일은 소고기로 따지면 ‘안심 말씀’ 이 나오는 날이라고 했지요?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6일에는 사랑에 성공하고, 사랑의 생명권으로 나오고, 첨단의 사랑의 차원에 도달하는 깊은 비밀의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월 6일 수요일 말씀은 생방송으로 전해집니다.

2. 올해는 한국과 아시아 몇 나라의 큰 명절인 ‘구정’ 이 2월 10일 주일입니다. 구정에는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정 때도 리듬 깨지지 않도록 각자 처한 위치에서 꼭꼭 기도하고 귀한 주일말씀도 꼭 챙겨서 듣기 바랍니다.

모두 구정 잘 보내요. 선생도 성자 주님과 함께 잘 보낼게요.

주변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생을 대신해서 교회에서나 월명동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먹여 주기 바랍니다.